

제6장

**한국성리학 연구**

배제성(성균관대학교) · 유한성(성균관대학교)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유교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검토 범위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성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으로 총 77편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연구 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다음, 몇 편의 주요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동일한 논문이 복수(複數)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 모두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이황(李滉, 退溪 1501-1570)에 관한 논문이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논문의 약 16.9%에 해당한다. 그 뒤를 이어서 율곡 이이(李珣, 栗谷 1536-1584)에 관한 논문은 8편으로 전체 논문의 10.4%를 차지하였다. 둘을 합친 비중은 약 27%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년도의 32% 보다는 조금 작았다. 이처럼 이이와 이황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양상은 본 레포트 분석이 동일한 규모로 처음 시행된 2016년 이래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양상들도 발견된다. 먼저 2017년까지 이황에 관한 연구는 이이에 비해서도 두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황과 이이 사이의 차이는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근소하게 앞서고, 2020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크게 앞서는 결과(17 대 6)가 나왔다. 그와 동시에 전체 목록에서 이황과 이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6%까지 감소하였다. 뒤이은 2021년 조사에서는 다시 이황의 연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동수를 이루었으며, 이황·이이 연구 비율도 약 32%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다시 이황에 관한 연구가 이이에 관한 연구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인물별 분류에서 보인 특징적인 경향

은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눈에 띄 정도로 여러 편이 발표된 학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의 보고에서는 매년 그 면면은 달라졌을 지라도 5-7편 정도로 많이 연구된 인물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전우나 한원진과 같은 인물은 비교적 자주 포함되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런 경우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한원진과 전우가 각각 3편으로 비교적 많았고, 김창협, 임성주 등이 각각 2편씩 연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성리학 연구가 조선 후기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황과 이이와 같은 특정 학자로 연구가 집중되었던 중기 연구와 달리, 후기의 연구는 논의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맥락이나 그 쟁점을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부합하는지는 추후의 연구 동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1) 퇴계 이황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상호	주자서절요의 편찬이 퇴계학 성립에 미친 영향	『국학연구』 49	한국국학진흥원
2	김종백	퇴계 이황 신수시에 나타난 기상론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55	한국동양예술학회
3	최다은	퇴계 立人極의 서예미	『동양예술』 57	한국동양예술학회
4	장윤수	『주자서절요』와 퇴계학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5	박근섭	박종홍의 퇴계학 연구 비판 - 양호론과 교육자론의 식민성	『孔子學』 46	한국공자학회
6	안동렬	퇴계의 교육론에서 지식교육의 기능	『교육철학』 96	한국교육철학회
7	조민환	퇴계 이황의 ‘肥遯’ 지향적 삶의 의미	『양명학연구』 67	한국양명학회
8	남경한	『傳習錄論辯』에 담긴 퇴계의 문제의식	『退溪學報』 152	퇴계학 연구원
9	박순남	退溪學派의 『小學釋義』 一考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0	이치역	수신(修身)에서 수신(守身)으로 - 퇴계 수양론에서 지킴[守]의 위상과 그 현대적 의의-	『퇴계학논집』 32	원남퇴계학연구원
11	장윤수	퇴계 이황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西銘』 담론	『退溪學報』 151	퇴계학 연구원
12	정대진	조선 시대 『심경(心經)』 연구의 흐름과 분기(分岐) - 제왕학적 계기와 심학적 계기의 구별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3	정도희	퇴계 이황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해석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 45(4)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년 발표된 퇴계 관련 논문은 13편으로 작년(15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경향은 전통적으로 퇴계 관련 연구의 최대 이슈를 이루었던 사단칠정논쟁이나 이기호발설에 초점을 둔 논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나마 정도희의 「퇴계 이황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해석 변천 과정 연구」 정도가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보일 뿐, 나머지 연구들은 미학, 교육, 소학, 수양론, 심경, 서명 등 다양한 주제로 산재되어 있다. 남경한은 조선 성리학의 양명학 비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퇴계 이황의 「전습록논변」을 중심으로 퇴계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드러내었다. 이치역은 ‘수(守)’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퇴계 수양론의 의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정대진은 『심경』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제왕학적 계기’와 ‘심학적 계기’를 구분하여 조망하는 시도를 하였다. 장운수 역시 「서명」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황 등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관점을 드러내었다.

## 2) 율곡 이이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 혁	왕도정치에 대한 이이와 정약용의 차별적 이해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2	정연수	율곡의 사회정치사상에 관한 북한의 선행연구 비판적 고찰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3	안승우	율곡 이이의 죽음 철학	『유교사상문화연구』 90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4	손흥철 박용석	君子の 길과 栗谷李珥의 삶 - 『戴禮管見』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5	이영경	율곡의 기질변화 수양법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6	김남균 김신경	율곡의 공부론을 통한 의학교육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 가치에 대한 고찰	『율곡학연구』 52	(사)율곡연구원
7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율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한국학』 45(4)	한국학중앙연구원
8	정강길	理先氣後와 理生氣에 대한 새로운 해석 - 理의 두 성격과 <시간적 선재설>의 가능성 모색	『율곡학연구』 52	(사)율곡연구원

2016년 이래 모든 조사에서 이이와 이황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편수가 많지만, 그 연구 분포를 보면 일관된 차이점도 있다. 그것은 이이에 관한 논문

가운데에는 유독 경세론 관련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조사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8편 가운데 경세론에 해당할 만한 연구는 김혁의 연구와 정연수의 연구 정도이다. 나머지는 수양론, 교육론, 이기론 등 여러 가지 주제가 고루 섞여 있다. 세부 주제로 보면, 율곡에 관한 북한의 선행 연구를 고찰한 정연수의 연구가 이목을 끈다. 이기론에 관한 논의로는, 정강길의 연구가 리의 논리적 선재성이라는 학계의 통설과 달리 시간적 선재설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 연구가 눈에 띈다. 안승우는 율곡 이이의 죽음 철학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를 발표하였다. 김남균과 김선경의 연구는 율곡의 공부론을 의학교육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 3) 남당 한원진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제성	한원진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통해 본 물(物)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철학』 152	한국철학회
2	나종현	18세기 초반 호론계 배사론(背師論)의 전개	『韓國思想史學』 70	한국사상사학회
3	홍성민	경위(經緯)의 논리와 리(理)의 실현방식-농암 김창협과 남당 한원진의 리기사찰론(理氣四七論) 재조명	『儒學研究』 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인물을 찾기 어렵고, 그나마 한원진과 전우가 3편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나종현의 논문은 18세기 초반 호론계 배사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 논문으로 한원진이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요하게 다루어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배제성의 연구는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에 대해 새로운 각도의 해석을 제안하였고, 홍성민의 연구는 경위의 논리라고 하는 성리학자들의 논의 틀을 중심으로 김창협과 한원진의 이기론과 사찰론을 재조명하였다.

### 4) 간재 전우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재식	艮齋田愚의 『明儒學案』 독해 양상과 그 성향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선연구원
2	주광호	艮齋 太極說의 범주환원적 문제 - 朱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哲學研究』 165	대한철학회
3	김근호	후창 김택술(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간재 전우는 조선 말기의 성리학자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인물 중의 하나이며, 2022년에도 3편이 발표되었다. 세 편 모두 각각 특징이 있는데, 신재식의 연구는 『명유학안』이라고 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전우의 독해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주광호는 태극에 대한 간재의 관점을 ‘범주환원적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것이 당대의 성리학계의 쟁점 및 논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김근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간재의 문인인 후창 김택술에 관한 연구이지만 전우의 성리설과의 연속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므로 전우에 관련된 연구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그 외 2편씩 연구된 인물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해임	김창협 『논어집주』 해설 특징 연구 - 『동유논어해집평(東儒論語解集評)』을 중심으로-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2	홍성민	경위(經緯)의 논리와 리(理)의 실현방식- 농암 김창협과 남당 한원진의 리기사칠론(理氣四七論) 재조명-	『儒學研究』 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유지웅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천설(天說)의 학계 평가와 실천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4	이상익	農山 申得求의 『天人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5	박제균	영조의 효치사상연구 -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6	이해임	영조대 『맹자』 경연의 정황과 맹자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7	김문준	녹문 임성주의 이기심성론에 대한 도학적 이해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8	안유경	녹문 임성주의 心論 고찰	『퇴계학논집』 32	영남퇴계학연구원

9	송치욱	동계 정온의 정치활동과 의(義)의 정치사상적 의미	『남명학연구』 7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0	구진성	동계 정온의 문인과 남명학맥의 전승	『남명학연구』 7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1	이영숙	晦峯 河謙鑰의 남명학 계승양상	『남명학연구』 7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2	김낙진	河謙 鑰心無對說의 의미	『남명학연구』 7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위에 제시된 것처럼, 김창협, 신득구, 영조, 임성주, 정온, 하겸진 등이 각각 2편의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인물들이다. 김창협에 관해서는 사철론이라는 이론적 쟁점과 더불어 『논어집주』에 관한 해설이라는 경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신득구에 관해서는 ‘천(天)’에 관한 그의 관점을 다룬 연구가 2편 발표되었다. 한편, 조선의 군왕인 영조를 비중 있게 다룬 논문도 박제균과 이해임이 각각 1편씩 발표하였다. 김문준과 안유경은 각각 임성주의 이기심성론을 다룬 논문을 1편씩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동계 정온의 정치사상과 학맥에 관해서, 그리고 하겸진의 심성론과 학맥에 관하여 2편씩 논문이 발표되었다.

### 3. 주제별 분류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리학 이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34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4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57%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2019년(37%)이나 2020년(43%)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이기심성론은 성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여타의 다른 응용이나 실천적 측면 또한 어느 정도는 이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범주 구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관점 차이나 매년도 별의 연구 동향에 따른 변동은 있을지라도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이 아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으로 총 11편으로 14.3% 비중이다. 이는 2021년에 비해서는 수적(16

편)으로나 비중(18%)으로나 조금 감소한 수치이다. 경세론 관련 논문은 10편으로 편수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1편이 늘었고, 비중 또한 13.0%로 조금 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22편으로 전년도의 14편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고, 그 비율 또한 28.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기심성론의 고정적인 높은 비율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이 전통적인 연구 범주와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기타 비중의 증가는 그에 잘 부합하지 않는 연구 동향의 다변화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앞으로 어떤 추이로 변화되어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이기론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제성	인물성동이논쟁을 통해 본 노사(蘆沙)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의 쟁점과 함의-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2	홍성민	경위(經緯)의 논리와 리(理)의 실현방식-농암 김장협과 남당 한원진의 리기사칠론(理氣四七論) 재조명-	『儒學研究』 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을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한국학』 45(4)	한국학중앙연구원
4	정강길	理先氣後와 理生氣에 대한 새로운 해석 - 理의 두 성격과 <시간적선재설>의 가능성 모색-	『을곡학연구』 52	(사)을곡연구원
5	정강길	作用因과 目的因으로서의 理 이해 - 理의 두 원인적 성격의 다스림-	『퇴계학논집』 32	영남퇴계학연구원
6	이중우	각일기성(各一其性)에 관한 을곡 만년정론 논쟁 - 이현의 대 권상하·한원진의 논쟁-	『퇴계학논집』 32	영남퇴계학연구원
7	정도희	퇴계 이황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해석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 45(4)	한국학중앙연구원
8	주광호	良齋 太極說의 범주환원적 문제 - 朱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哲學研究』 165	대한철학회
9	김형찬	退溪 李滉의 理自到說에 대한 연구 - 인식과정에서 마음의 역할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52	퇴계학연구원

이기론에 대한 논문은 9편으로 전년도(14편)와 그 이전 해(5편)의 중간 정도의 편수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기론과 심성론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이기론과 심성론을 합한 전체의 편수와 비율이 더 중요하다.

이기론과 심성론을 합한 이기심성론의 편수로 보면 2021년의 51편에 비해서 2022년에는 34편으로 2020년의 39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이황에 대한 연구가 2편인 것을 제외하면 여러 주제와 인물로 분화된 모습이다. 기정진, 김창협, 한원진, 이이, 이현익, 전우 등의 인물이 다루어졌고, 정강길은 이기론 자체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한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이기론 범주에서는 이황과 이이에 대한 연구의 편중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있다.

## 2) 심성론

2022년 목록에 포함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총 25편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편이 줄었다. 그 전체 목록은 아래와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병목	여호 박달주의 인심도심설 고찰 -율곡·포음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儒學研究』6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유지웅	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의 성리설과 18세기 낙론계에서의 반향(反響)	『儒學研究』6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유지웅	도암 이재의 성리설 연구 -호락논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양명학연구』 67	한국양명학회
4	이종우	미발과 그 공부에 관한 정조와 정약용의 문답 연구-호락논쟁과 관련하여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5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 및 그것에 관한 호락학자들의 논쟁	『열상고전연구』 76	열상고전연구회
6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의 미발과 정(靜)의 관계 및 그 공부	『온지논총』 73	온지학회
7	배제성	한원진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통해 본 물(物)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철학』 152	한국철학회
8	이상익	조선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	『退溪學報』 151	퇴계학연구원
9	이상익	雪岳權玉鉉의 性理思想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0	김근호	후창 김택술(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11	전성건	구봉 송익필 심론의 합리성과 적의성에 대한 연 구	『儒學研究』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박학래	鳳樓 俞莘煥의 未發論 연구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13	김문준	녹문 임성주의 이기심성론에 대한 도학적 이해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14	안유경	녹문 임성주의 心論 고찰	『퇴계학논집』32	영남퇴계학연구

				원
15	김낙진	河謙 鑛心無對說의 의미	『남명학연구』 7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6	유지웅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천설(天說)의 학계 평가와 실천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17	이상익	農山 申得求의 『天人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18	이영호	퇴계학(退溪學) 혹은 학퇴계(學退溪)의 사이	『孔子學』 48	한국공자학회
19	배제성	화서 이항로의 선악관과 역사의식 -역사적 주제 형성의 성리학적 기획-	『철학』150	한국철학회
20	장운수	퇴계 이항과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西銘」 담론	『退溪學報』 151	퇴계학 연구원
21	정대진	조선시대 『심경(心經)』 연구의 흐름과 분기 (分岐)-제왕학적 계기와 심학적 계기의 구별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5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2	김세진	張載의 氣質變化를 통한 天人合一 修養論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23	선병삼	탁사 최병헌의 유교 변증이론 고찰 - 『성산명경』 과 『만중일련』 을 중심으로-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24	유영	주자학심성론과 예학의 관계 고찰Ⅱ -조선전기 및 중기의 심계념논의를 통해 본 예학회귀사조의 원인 분석-	『退溪學報』 152	퇴계학 연구원
25	이재복	성호학파의 공철정담론에 대한 인지주의적 접 근	『철학논집』70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22년 심성론 연구 목록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은 사단칠정·인심도심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호 박필주의 인심도심설을 다룬 김병목의 연구 정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이기론까지 범위를 확장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김창협과 한원진의 사칠이기론을 다룬 홍성민의 연구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사단칠정·인심도심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 조사의 동향을 보면 사단칠정·인심도심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예외 없이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주제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이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적어졌지만, (심성론 범주 기준으로) 각각 5편과 8편으로 여전히 많은 편이었다. 이는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집적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다른 주제로 옮겨 간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런 동향이 이후에도 지속되는지는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호락논쟁에 관련된 연구는 전년도의 4편보다 조금 더 많은 6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유지웅은 도암 이재와 백수 양응수를 다루었고, 이종우는 특정 인물보다는 쟁점이나 이슈가 논의

된 맥락과 양상을 다룬 3편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배제성은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런데 호락논쟁의 연구 동향을 보면, 실제의 양상은 상당히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한원진과 이간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것은 배제성 정도이고, 유지웅은 후대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여 사상사적 맥락과 인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종우 또한 지속적으로 당대 학술계의 논의를 폭 넓게 조망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한 연구에서는 정조와 정약용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에 많은 연구가 축적된 한원진과 이간에 관한 연구 동력은 떨어졌지만, 이후의 전개 양상으로 관심이 확장되면서 호락논쟁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심설논쟁에 관한 연구는 이상익의 「조선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 한 편만이 조사되었다. 심설논쟁에 관한 연구는 2019-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4-6편 정도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에 비해서 2022년에는 상당히 감소한 셈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집중적인 논의로 심설논쟁의 쟁점과 진행 양상 등이 상당히 해명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연구 동향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심성론 연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특정 인물의 성리설을 종합적으로, 혹은 주제적으로 조망하는 논문들이다. 김택술, 신득구, 임성주 등의 면면이 보인다.

### 3) 수양론 및 교육론

2022년에 게재된 수양론 및 교육론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근섭	박종홍의 퇴계학 연구 비판 -양호론과 교육자론의 식민성-	『孔子學』 46	한국공자학회
2	안동렬	퇴계의 교육론에서 지식교육의 기능	『교육철학』 96	한국교육철학회
3	김낙진	남명 조식의 신명사도·명과 심법	『동양고전연구』 74	동양고전학회
4	조민환	퇴계이황의 '肥遯' 지향적 삶의 의미	『양명학연구』 67	한국양명학회
5	이영경	율곡의 기질변화 수양법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6	남경한	『傳習錄論辯』에 담긴 퇴계의 문제의식	『退溪學報』 152	퇴계학 연구원
7	천은복	성리학적 수행론-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8	이선경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위공직자로서의 황희	『儒學研究』 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김남균 김선경	율곡의 공부론을 통한 의학교육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 가치에 대한 고찰	『율곡학연구』 52	(사)율곡연구원
10	박순남	退溪學派의 『小學釋義』 一考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1	이지역	수신(修身)에서 수신(守身)으로 - 퇴계 수양론에서 지킴(守)의 위상과 그 현대적 의의-	『퇴계학논집』 32	영남퇴계학연구원

수양론 및 교육론에서는 총 12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인물별로 보면 퇴계와 관련된 연구가 총 6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율곡 관련 연구가 2편이다. 황희와 같이 평소 성리학 관련 논문에서 보기 어려웠던 인물도 눈에 띈다. 해가 지날수록 수양론과 교육론 관련 논문들은 개념적 이해보다는 실제 삶에서의 의미나 교육적 효용성을 주로 다루는 논문들로 비중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천은복의 「성리학적 수행론: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 4) 경세론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경현	조선시대 경연에서 『서경』 「우공」 편강독의 의미	『孔子學』 48	한국공자학회
2	송치욱	동계정은의 정치활동과의(義)의 정치사상적 의미	『남명학연구』 7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강보승	Land Reform in the Realization of a Confucian Ideal: The Debate among Neo-Confucian Scholars in the Mid-Chosŏn Period	『Acta Koreana』 22(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	박제균	영조의 효치사상연구 -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5	김현우	조선중기유교 “문명”의 세속화정책 - 『신증동국여지승람』 효자·열녀기술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8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6	박제균	정조의 군사론(君師論)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8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7	강경현	조선시대經筵에서 『尙書』 강독의 의미 - 조선전기경연자료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51	퇴계학 연구원

8	나중현	18세기초반 호른계 배사론(背師論)의 전개	『韓國思想史學』 70	한국사상사학회
9	정상봉	정주(程朱)의 충서론(忠恕論)과 당대 신유가의 해석	『태동고전연구』5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김혁	왕도정치에 대한 이이와 정약옹의 차별적 이해	『울곡학연구』 51	(사)울곡연구원
11	정연수	울곡의 사회정치사상에 관한 복한의 선행연구 비판적 고찰	『울곡학연구』 51	(사)울곡연구원

경세론 관련 연구는 총 11편으로 인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주제와 인물들이 다뤄지고 있다. 또 경세론이라는 주제를 점차 확장적으로 인식하면서 단순한 정치사상 이외에도 ‘열녀·효자’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한 연구까지 시도되면서 탐구의 지평이 점차 더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명응을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정조에 대해 연구한 박제균의 논문은 정조가 어떠한 관점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복고를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연구라서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 5) 기타

여러 다양한 주제로 엮은 기타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보였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지은	柳健休 『東儒論語解集評』에 나타난 조선유학사의 특징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2	이해임	김창협 『논어집주』 해설 특징 연구-『동유논어해집평(東儒論語解集評)』을 중심으로-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3	전성건	대산 이상정의 『중용』 해석과성리설의 이해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4	이상호	주자서필요의 편찬이 퇴계학 성립에 미친 영향	『국학연구』 49	한국국학진흥원
5	김성희	老柏軒 鄭載圭의 독서법 유형과그 지향	『남명학연구』 7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6	구진성	동계 정온의 문인과 남명 학맥의 전승	『남명학연구』 7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7	이영숙	晦峯 河謙嶺의 남명학 계승 양상	『남명학연구』 7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8	서원혁	조선 중기 금강문화권 예학의 전개와 특징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9	김종백	퇴계 이황 산수시에 나타난 기상론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55	한국동양예술학회

10	최다은	퇴계 立人極의 서예미	『동양예술』 57	한국동양예술학회
11	박학래	호남유학연구에 대한 검토와 전망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12	신혜연	‘유형원의 실리론’ 분석 - 실리의 강조는 ‘주리’적 사유로의 轉回인가-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13	이해임	영조대 ‘맹자’ 경연의 정확과 맹자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14	이원진	농암(龔巖)의 경천(敬天)사상 - 聖俗間 거리두기를 위한 자연의 재발견-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15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16	안승우	율곡 이이의 죽음철학	『유교사상문화연구』 90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17	김경호	고봉과 퇴계의 교유에 대한 성찰 - 존경과 신뢰의 감성적 기제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52	퇴계학연구원
18	김세리아	조선시대 여성 규훈서의 분노감정 이해 - 『자경편』의 자기배려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8	한국여성철학회
19	손흥철 박용석	君子的 길과 栗谷 李珥의 삶 - 『戴禮管見』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20	유정은	율곡의 「경포대부」에 숨겨진 신사임당의 사상 연구	『율곡학연구』 52	(사)율곡연구원
21	장운수	『주자서절요』와 퇴계학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2	신재식	良齋 田愚의 『明儒學案』 독해양상과 그성향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총 22편으로 기존 사단철정과 같은 심성론 관련 논문들만큼 많은 양의 결과물이 산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주제 및 연구 방법론도 상당히 다양하기에 분류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지는 의문이다. 다만 김경호의 「고봉과 퇴계의 교유에 대한성찰- 존경과 신뢰의 감성적 기제를 중심으로-」, 안승우의 「율곡 이이의 죽음철학」과 같은 연구들같이 성리학적 논쟁이나 개념을 넘어서 학자 개인의 관점에서 나눴던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의 접근법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성리학 논문들이 개념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이러한 개념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학자 본인에게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루는 논문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 1) 정강길, 「理先氣後와 理生氣에 대한 새로운 해석-理의 두 성격과 ‘시간적 선재설’의 가능성 모색」

이 논문의 목적은 명확하다. 주희가 수립한 성리학 이기론의 이기선후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공유되는 통념과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자학의 이기론은 그것이 성리학 이론에서 가지는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원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논의의 축을 이루는 이기관계의 큰 축은 양자는 서로 결코 떨어질 수 없이 붙어있으면서도, 결코 서로 섞이지도 않는다는 ‘이기불리부잡’이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러한 이기론을 실질적인 이원론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리(理)로 귀결되는 일원론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같은 철학적 문제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토론되어 왔다. 아울러, 저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기선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리와 기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를 논할 수는 없지만, 존재론적 위계에서 리가 기보다 더 근본적인 지위에 있음을 뜻하는 논리적 선후로는 해석가능하며, 리가 기에 앞선다는 주자의 언설 또한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sup>1)</sup> 사실 저자도 이러한 해석이 그 자체로 타당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시간적 선재성’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주희의 이기론 체계에서 성립함을 보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설명이 상당히 난해한 편이다.

우선, 저자가 제안하는 설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에 의해서 세계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미 발현된 적이 있었던 理”와 “단 한 번도 아직 발현된 적이 없는 미발현의 理<sup>2)</sup>”라는 구분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주자학에서 기(氣)는 장재가 주장

1) 저자는 이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를 명시하고 있다. (165쪽)

2) 162쪽.

한 것처럼 영원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氣)가 소멸되게 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기와 달리 그 안에 있던 리(理)는 세계에 하나의 “결”로 남게 된다. 그리고 것처럼 “결”로 남은 리는 더 이상 이 세계의 주체는 아닌, 객체로만 남게 된 “과거로서의 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로서의 “결”인 리는 새롭게 생성되는 기의 원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게 된다. 사실 이 때, 과거로서의 리가 새로운 기를 생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령, 한 마리의 소가 과거의 어느 때에 살다 죽었다고 하자. 지금 그의 손자뻘 되는 소가 한 마리의 새끼를 또 낳았다. 여기서 새끼를 낳는 소는 지금 살아있는 소인 것 같다. 이미 죽어버린 소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다면 과거에 다른 어떤 사건(이를 테면 지금 새끼를 낳은 소의 어미를 낳음)의 원인이었기 때문이지, 지금에 ‘과거로서의 리’가 되어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과거로서의 리’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저자의 취지를 나름대로 추론해 보자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거칠게 말해서 어느 한 사건의 발생은 “직전까지의 총체적인 과거 세계”를 배경으로, 그것을 토대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과거의 총체를 ‘과거로서의 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과거의 총체가 현재의 사건에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곧 ‘리의 선재’로 치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보면, 그 사건은 리와 기가 결합된 소산이었을 것이다. 한편, 현재의 상황으로 말하면 (저자의 입장을 따르면) 기는 없어졌지만, 리 또한 현재로서 실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결로 남아 있다. 그래서 후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혹, 그 과거의 ‘결’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른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이처럼 인식적이고 정신적인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생성이라는 인과적 사건을 곧장 일으킨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한 가지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느껴지는 점은 ‘리선기후’ 라고 하는 말이 논의되는 맥락과 범위의 문제이다. ‘리선기후’ 가 ‘일원론’ 이나 ‘이원론’ 과 같은 용어와 더불어 논의되는 까닭은 그 검토의 기본적인 동기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경우라도 기가 없이 홀로 선행하는 리가 결코 없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면, 기존의 설명은 그대로 잘 작동한다. 그런데 저자가 제시하는 설명의 맥락은 이와는 다소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그것은 거칠게 말하면 가령, 현상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아직 생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내재한 리에 근거하여 그것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여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의 설명이라면 기존의 이해에서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혹은, ‘기의 생성’ 이라고 하는 지점에 초점을 둔다면, 어떤 국면에서는 “리가 기를 생성”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은 전통의 성리학자들도 인정하는 만큼 그 구체적인 의미는 질문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어쨌거나 그 때의 리 역시 결코 기 없이 존재한 적은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둔다면 기존의 설명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저자가 해석하고 있는 범위와 맥락으로도 ‘리선기후’ 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어쩌면 저자의 논의와 기존 학자들의 논의에는 생각보다 차이는 작고 접점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문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기에 의해서 세계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미 발현된 적이 있었던 理” 와 “단 한 번도 아직 발현된 적이 없는 미발현의 理” 라는 구분이 성리학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저자도 논문의 어느 한 부분에서 순환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지만, 성리학의 리가 우주론적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방식은 사계절의 순환이다. 그러한 시공간의 일정한 질서 안에서 만물은 그 나름의 리에 따라 태어나고 살아간다. 인간 또한 나름대로 주어진 고정된 본성과 소임이 있기에 일정한 도리인 인의예지신의 오상을 자신의 소명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틀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미발현의 리” 와

“발현된 적이 한 번 이라도 있는 리” 라는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리 자체가 창조적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정도의 더 역동적인 세계관에 더 적절한 이해 방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리(理)의 의미를 풀어내는 것은 이전의 성리학자들과는 다르게,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을 느끼게 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우선, 저자가 현대적인 관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기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 또는 우주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적 지평을 정밀하게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종의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이것은 성리학을 오늘날의 철학으로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부분이 이 논문에 대해서 가장 아쉽고 또 궁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기론을 현대에도 실제로 기능하는 형이상학을 정초하고자 함인가? 그렇다면 그 때의 이기론은 여전히 성리학적 기반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성리학적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현대화 된 형이상학으로서 이기론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가령, 그것은 현대의 물리학이나 우주론과 양립하면서 여전히 전통적인 수양론이나 본성론과 긴밀하게 결부될 것인가? 요컨대, 그러한 형이상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출발점에 대한 나름의 대답이 전제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조차 저자가 공들여 제시하고 있는 정교한 설명과 재해석을 따라가며 이해하기 위해 애쓰기 위한 동기를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자의 이후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해본다.

## 2) 유지웅, 「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의 성리설과 18세기 낙론계에서의 반향(反響)」

이 논문은 도암 이재의 대표적인 문인 중 한 명인 백수 양응수의 성리설을 호락논쟁의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도암 이재는 농암 김창협·삼연 김창흡의 뒤를 이어 낙학을 이끈 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의 성리설이나 호락논쟁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에 관해서는 충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 백수 양응수의 경우, 그는 당대 도암 문하 및 학계에서 큰 명망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현대 학계에서 양응수에 관한 연구는 도암 이재에 비해서도 훨씬 미비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성리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양응수의 인지도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선행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백수 양응수의 이론과 당대 학술계 내에서 그의 역할에 관한 설명은 상당한 심도와 풍부함을 겸비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고 논쟁한 이론적 쟁점이 당대의 학술계 정황과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호락논쟁이라고 하는 당대의 학술적 지형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부분은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김창협·김창흡-도암 이재-미호 김원행-근재 박윤원-매산 홍직필-고산 임헌희 등으로 이어지는 낙학계 종장의 계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호락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도암 이재 학단에서 호락논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역동적인 논쟁의 과정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한 논쟁의 주체가 당대 도암 문하를 함께 대표한 백수 양응수와 겸재 박성원이었고, 그 논쟁의 수준도 매우 격렬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롭다. 낙학계의 이론적 입장이 확립되는 과정이 상당히 역동적이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이론적 쟁점으로 양응수가 주장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심유이기(心有二氣)’, 즉 ‘심에 두 가지 기가 있다 [심은 두 개의 기로 구성된다]’ 라는 키워드는 호락논쟁의 쟁점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한원진과 이간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호락논쟁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한층 더 넓은 범위와 시각에서 호

락논쟁을 탐구하는 연구가 본격화 되었고, 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된다.

### 3)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율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이 논문은 “율곡의 성리학에서 기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 그것이 맹자의 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관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맹자와 성리학 사이에는 복합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리학자들 스스로 주장하듯 양자는 어떤 취지에서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가 놓인 긴 시대적 차이만큼이나, 그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으리라는 생각 또한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한편, 조선 성리학은 조선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며 그 나름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만들어 나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 걸음 또 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조선 성리학자들의 주장에 담긴 철학적 함의를 가능한 한 넓고 깊음 범위로 탐구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더 넓은 차원의 유학적 지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맹자와 율곡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이 논문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구체적인 접점은 기(氣)라는 키워드에 있다. ‘이통기국’ 과 ‘기발리승일도’, ‘리무위, 기유위’ 와 같은 주장으로 대표되는 율곡의 학설에서 기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그는 선(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에 부합하는 기(氣)의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들에 주목하는데,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본연지기’, ‘담일청허지기’, ‘담연청허지기’ 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한편, 맹자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키워지는 ‘호연지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호연지기 또한 우리가 바람직한 기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율곡이 강조하는 내용들과 연결점이 있다. 저자의 표현을 빌면, ‘담일청허지기’는

“ ‘호연지기’ 처럼 맑고 깨끗한 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연결점 안에서 저자가 율곡과 맹자를 비교해 나가는 초점은 이기론·심성론·수양론의 종합적 이해에 기반한 비교이다. 동시에, 『맹자』에서 제시된 기에 대한 다양한 설명 또한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맹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① ‘지(志)’ 에 대비된 ‘기(氣)’, ②밤에 보존되어[ ‘야기’ ] 이른 새벽에 드러난다는 ‘평단지기’, ③ ‘호연지기’ 등이다. 저자는 이 중에서 ①은 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다루고, ②에 대해서는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기를 잘 길러야 함을 드러내며, ③에 대해서는 호연지기를 잘 길러서 본연의 마음을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것들은 모두 맑고 깨끗한 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율곡이 말하는 본연지기·담일청허지기·담연청허지기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한편, 율곡에 대해서 저자는 우선 율곡 이기심성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그에 기반하여 리의 실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연지기와 같은 개념이 부각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그 연장선에서 수양론 또한 맑은 기를 중시하게 되며, 그에 따라 호연지기·담일청허지기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해 나간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맹자가 ‘호연지기’ 를 잘 보존하여 본연의 선한 마음을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율곡도 호연지기·담일청허지기·담연청허지기를 회복하여 본연의 선한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 정리한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에서 저자는 율곡 학설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본연지기의 중요성과 역할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힘입어서 맹자와의 공통점을 추출한 방식 또한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교의 과정에서 더 탐구될 수 있는 흥미로운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은 없지 않다. 가령, 맹자의 논의에서 평단지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기를 말한다면, 호연지기는 적극적인 도덕적 실천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양자의 취지와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

의된다면 맹자의 기론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수양론적 함의가 좀 더 풍부해 질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율곡과의 비교점으로서 공통의 준거에 집중한 것은 이 논문의 취지 상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 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 함의들이 거의 여러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맑음’ 만으로 설명되어 버린 점은 다소 아쉽다. 다른 각도에서, 동일하게 맑은 기로 규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호연지기’ 와 ‘담일청허지기’ 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강조점 또한 조금은 달라 보인다. 그렇다면 그 의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맹자와 율곡 사이의 비교 또한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4) 정연수, 「율곡의 사회정치사상에 관한 북한의 선행연구 비판적 고찰」

이 글은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율곡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상호보완을 이룰지를 모색하고자 쓰여진 글이다. 때문에 저자는 북한학계가 율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을 저술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며, 이에 글 자체는 연구사 정리의 형식으로 쓰여질 수 밖에 없었다.

먼저 저자는 북한 연구자들에 대한 일반론적인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다. 사실 율곡에 관련된 북한 연구의 이미지라면 대부분 리기론에 대해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물론 저자 또한 그러한 면이 없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율곡의 사회정치사상에 대한 북한의 접근은 이러한 편견과 달리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논증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율곡의 사회정치사상에 대해 북한학계는 ‘정치’ 와 ‘사회’ 라는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본(民本)’ 과 ‘인정(仁政)’, ‘왕도정치(王道政治)’ 라는 측면에서 율곡의 정치사상을,

그리고 ‘변법(變法)’ 과 ‘경세(經世)’, ‘교육(教育)’ 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사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주장한다. 먼저 저자는 정치사상에 관련하여 북한학계는 율곡이 백성을 위하고 임금을 비판한다는 점을 높게 사면서도 여전히 지배계급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목적으로 귀결되기에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하고 있음을 서술했다. 특히 인정과 민본을 강조한 율곡의 주장에 대해 정치 행위의 목적을 백성의 안위로 상정하면서 계급구조 자체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받고 있음을 논문에서 보이고 있다.

반면 저자는 ‘변법’ 특히 ‘인재등용’ 루트는 ‘과거(科擧)’ 로 일원화하는 점, 그리고 ‘수미법(收米法)’ 을 통해 조세 납부과정에서 중간착취의 가능성을 차단한 점을 근거로 율곡의 사회 및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호평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재미난 것은 「성학집요」 등의 텍스트를 통해 북한학계가 율곡의 논법을 마치 변증법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율곡이 제도의 개선을 논할 때 먼저 경전을 언급하고 이후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이를 ‘정반합’ 구조로 인식하는 북한 학계의 특성은 나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 광복 이전에 교육이란 주제로 율곡의 사상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 논문을 통해 생각해볼 북한 학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치사상을 논할 때 지배계급의 합리화로 사용되는 ‘성인(聖人)’ 이란 개념이 교육학에서는 누구나 수양을 통해 도달해야할 인간상이라는 다른 의미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북한학계를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일방적이고 일원적으로 볼 수 없음을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학계에서 율곡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각 분야의 연구성과가 지닌 장단점 또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율곡의 ‘성인도통(聖人道統)’ 을 인식하는 북한학계의 정치사상 이해는 율곡의 텍스트가 지니는 수양론적 의미를 간과한 것임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득권 지배구조 유지로 ‘인정’ 과 ‘민본’

을 다루는 것은 조선 사대부들의 시대 인식을 지나치게 현대적 관점으로 편협하게 비판하는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아주 이른 시기인 1960년대 이미 율곡의 경제사상을 북한학계가 일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율곡·우계에서 성호·반계·다산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적 맥락에 입각해 경제정책을 이해하고 있는 북한 경제학계의 연구방식은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일천즉천(一賤則賤)’ 즉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제도에서 급증한 노비의 수에 관해 율곡은 ‘종모법(從母法)’을 주장하는 점을 북한은 주목했었다.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에 노비 신분을 이어받는다는 종모법은 노비와 양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개혁이기에 율곡의 실천적인 개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꼭지라고 할 수 있다. 또 율곡 교육론이 지나치게 행동 규제적인 면이 강하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북한의 시각 또한 지나치게 철학에 경도되어 구체적인 교수법 및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볼 만한 지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저자가 목표로 한 한국과 북한의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는 조각들을 위 논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논문 자체가 연구사 정리에 가깝기 때문에 참고한 문헌을 함께 읽어야 하고 직관적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임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논문의 접근성이 마냥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개별 논문이 추가로 나와야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논증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추가 연구로 이 논문의 완성도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 5) 이영경, 「율곡의 기질변화 수양법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다음은 율곡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를 다뤄보고자 한다. 앞서 정연수의

논문을 통해서 북한 학계는 율곡의 교육사상이 가진 단점 즉 실제적인 교수법의 부재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글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율곡 교육론이 어느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지 확인해보자 한다.

저자는 율곡의 ‘기질변화(氣質變化)’를 통해 유교윤리가 가진 교육론적 의미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전개했다.

우선 기질이 윤리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다루며 윤리적 성찰에서 기질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의 탁박(濁駁)·편색(偏塞)이 마음 속 리를 가리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질변화가 필요함을 논증했다. 그리고 지통(至通)·지정(至正)한 기를 품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기와 기질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서 기질변화의 목표가 선(善)과 중(中)임을 밝히며 유학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는 상황에 적절함인 설명했다. 또 기질변화의 실천 방법으로 ‘극기(克己)’와 ‘양기(養氣)’를 제시하고 이것이 가진 교육론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극기와 양기는 각각 기를 극복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상반된 두 방향으로서의 수양론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기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를 합리화시키고자 한다. 즉 탁박하고 편벽된 기도 있지만 양심이나 야기(夜氣)라는 측면에서 기를 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특히 강(剛), 유(柔), 엄(嚴), 급(急)과 같은 성격적인 요소로 기를 파악하고 이를 다스리는 것으로서의 극기를 설명했다. 또 양기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극대화하는 수양으로서 설명하며 호연지기를 기름이 인간에 내재한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명 기질변화를 양기와 극기로 나누고 그것이 인간 도덕성 실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이 글의 시도는 윤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가 지식 확장과 해석에 머문다고 비판했던 기존의 연구와 얼마나 많은 차별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분명 극기를 기질적 양상으로 인해 형성된 성격적인 특성을

성찰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저자는 나름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려 한 듯하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논의하는 기질적 성향이나 성격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논의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앞서 북한학계가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 또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그저 ‘율곡 수양론 다시 읽어보기’에 그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힘들 상황이다. 그저 생활 속 지혜의 일종으로 머물고 있는 유교 수양론이 언제까지 교육이론으로 논의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 필자는 의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몇몇 텍스트에서 따온 개념적인 서술보다는 생활적 측면에 입각한 율곡의 어록들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한다. 스승으로서, 인간으로서 율곡이 자신이 처한 윤리 및 교육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육론 연구에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6) 안승우, 「율곡 이이의 죽음 철학」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와 율곡의 사생관을 엮고자 하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신선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기존의 성리학 논문들이 개념적 정의와 분석에 치중한 반면 이 논문은 삶의 문제로서 유학을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유학이라는 주제는 이러한 실존적 문제에 과연 얼마나 밀접한지를 심도 있게 논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살신성인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관점의 서술을 벗어나 ‘죽음 철학’이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제목은 그러한 기대감을 상당히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저자의 문제의식은 다른 부분에서 시작된다.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인간 율곡이 본인의 이론 체계 속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리와 기, 정기, 혼백과 같은 개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이는 본론 첫 부분인 ‘존재의 소멸로서 죽음의 의미와 본질적인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저자는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것임을 전제로 삼고 율곡은 도체와 의리를 인식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도체와 의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사로움을 극복하면서 당위성을 획득하는 도덕적 행위가 가진 숭고함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어서 리와 기를 영속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으로 구분하면서 기의 취산(聚散)을 인간의 비본질적인 죽음으로 그리고 리를 인간의 영원함으로 상정하고 있다. 저자는 율곡이 인간의 죽음을 지각의 소멸이자 기의 흩어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사를 통한 조상과의 감응은 기가 아닌 조상과 자손이 같은 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감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각의 소멸은 누구나 겪는 것이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실심(實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음 목차에서는 기가 비록 비본질적이지만 죽음 이전에는 기가 수양의 대상으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저자는 기가 분명 죽음 이후에 흩어지지만 살아 생전에는 어떠한 기를 기르고 쌓아 왔는지도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호연지기와 진원지기를 제시하며 올바른 기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 다른 생명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감수성이 작용하고 확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의 장점은 아주 명확하다. 자칫 개념적 규정에 천착해 이해되고 있는 리와 기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삶과 관계 맺으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리와 기가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음을 단순히 ‘A+B=C’ 라는 명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죽음에 있어서 리와 기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 이나

‘공기’와 같은 수준의 생활용어였던 리와 기라는 용어가 철학적인 개념으로 발전해가고, 나아가서 그러한 측면에만 경도된 인식을 가질 경우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기시켜준다. 때문에 이 용어를 일상과 학문 모두에 통용했던 당시의 학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가졌을 만한 실존적·감정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러한 삶의 한 부분으로서 리와 기의 의미를 포괄적이면서도 풍부하게 이해하기에는 저자가 인용한 전거들이 다소 협소해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주로 「성학집요」와 「사생귀신책」, 그리고 극소량의 어록들에 의거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에 율곡이 가진 생각을 도출해내고 있다. 율곡으로부터 조금 더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길어와서 그로부터 더 절실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는 없었을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율곡이 언급한 내용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남겨진 율곡의 문헌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리 공정한 평가가 아닐 것이다. 사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전거들은 단순히 따져 보아도 율곡이 남긴 문헌 중에서 결코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더구나 진지한 이론적·사상적 담론으로 범위를 줄인다면 더더욱 그렇다. 사실 율곡 문집 전체를 살펴보아도 생각보다 이론적인 진술을 많이 남긴 편이 아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정말로 율곡이 이러한 문제를 절실한 삶의 문제로 여겼다면 왜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많이 그러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과 아쉬움을 남기는 면도 없지 않다.

상술한 측면들은 저자의 의미 있는 문제의식과 시도에 대한 긍정과 더불어 성리학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남기는 것 같다. 저자와 같은 문제의식의 필요성을 오늘날 더욱 절감하게 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원 소재로서의 통로와 단서를 찾아보면,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협소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단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한 문제의식과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더 과감한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오늘날의 우리 삶과 괴리되어 가는 성리학적 담론의 생명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2022년 한국 성리학 관련 연구 전체 동향 및 주요논문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이이와 이황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양상은 본 레포트 분석이 동일한 규모로 처음 시행된 2016년 이래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양상들도 발견된다. 먼저 2017년까지 이황에 관한 연구는 이이에 비해서도 두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황과 이이 사이의 차이는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근소하게 앞서고, 2020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크게 앞서는 결과(17 대 6)가 나왔다. 그와 동시에 전체 목록에서 이황과 이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6%까지 감소하였다. 뒤이은 2021년 조사에서는 다시 이황의 연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동수를 이루었으며, 이황·이이 연구 비율도 약 32%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다시 이황에 관한 연구가 이이에 관한 연구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인물별 분류에서 보인 특징적인 경향은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정도로 여러 편이 발표된 학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성리학 연구가 조선 후기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황과 이이와 같은 특정 학자로 연구가 집중되었던 중기 연구와 달리, 후기의 연구는 논의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맥락이나 그 쟁점을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에 부합하는지는 추후의 연구 동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별 양상을 보면,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34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4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57%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

지만, 2019년(37%)이나 2020년(43%)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이기심성론은 성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여타의 다른 응용이나 실천적 측면 또한 어느 정도는 이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범주 구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관점 차이나 매년도 별의 연구 동향에 따른 변동은 있을지라도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이 아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14.3%), 경세론(13.0%) 순이었고,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22편으로 그 비중(28.6%)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이기심성론의 고정적인 높은 비율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이 전통적인 연구 범주와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기타 비중의 증가는 그에 잘 부합하지 않는 연구 동향의 다변화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앞으로 어떤 추이로 변화되어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성리학 연구 현황을 보면 연구의 초점이 조선 후기로 이행하면서 연구 주제나 인물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양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 지면의 한계 상 일일이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려웠지만 새로운 방법론과 수준 높은 논의를 보여준 연구도 여러 편 있었다. 연구의 다변화와 질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간다면 성리학 연구의 발전과 심화 또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것이다.